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받쳐주며

발전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재 중국 중소기업의 수는 1,000만개가 넘어,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은 전 생산량의 약 60%이며, 납세액(納稅額)은 40%, 종업원수는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에서 한때 비국유(非國有) 기업으로서 한 마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촌영(村營)이나 도시의 한 구역(區域)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정영(町營) 등의 향진기업(鄉鎮企業)은 대부분이 경영의 미숙이나 기술부족, 자금난 등의 경영난으로 사라지고, 시장경제의 흐름을 타고 주식제(株式制)를 도입하는 회사조직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으로서 “리스트라(구조조정 : restructuring - 적자사업을 정리하고 성장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 및 조직을 재편성하거나 인원 삭감 등에 의한 기업의 재구축)”로 시달리고 있는 대규모의 국유기업과 전혀 다르게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여 중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 성장이 뚜렷한 “사영기업”

중국의 영세(零細) 기업은 종업원이 8명 미만의 기업을 개체(個體)기업이라고 하여 소위 가내(家內)기업 수준을 말하며, 종업원이 8명 이상인 기업은 사영(私營)기업이라고 하여,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이들을 “자본주의의 꼬리”라고 부르며 멸시하거나 “자본주의에 물들은 무리”라는 뜻의 “주자파(走資派)”라고도 불러 비난을 받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사회주의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헌법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원”이라고 뚜렷이 밝혀져, 확고한 시민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개의 사영기업에서 2,500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국유기업의 폐쇄나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를 고용하여 사회안정에 공헌하고 있다. 경영에 자신을 갖게 된 사영기업들은 운영이 부실하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 국유기업을 사들여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집단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

◎ “온주모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중국의 동쪽 중부의 절강성(浙江省)의 남쪽 바닷가에 있는 온주시(溫州市)는 산업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아직 그리 강하다고 하기 이르지만, 온주시로서 장기 경제성장율이 높아서, 중국에서도 가장 빨리 잘 살게 된 도시의 하나로 유명하며, 온주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성사시키는 기업가 정신이 강하며, 기업가로서의 경쟁력도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온주는 절강성의 거의 남쪽 끝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의 최대 국제 산업도시 상하이(上海)나 중국 최대의 공장지대로 도약하고 있는 영파(寧波)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지방 도시에 불과한데, 중국의 활력이 넘쳐흐르는 “창조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온주 사람들은 옛적부터 강한 상인정신을 갖고 있어 타향에서도 지혜와 인내심으로 정착하려는 의지가 뛰어나고,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개척정신을 갖고 있으며,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선구(先驅)정신”이 강하다.

온주시는 그 동안 누군가 사업하기 좋도록 시장경제에 적합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개인경영의 특성을 살린 전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중소 기업 그룹을 만들어 발전해 왔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던 용자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여, 민간자본을 육성하였고, 도로·철도·상하수도·전기·통신 등의 산업을 위한 산업기반(infra : infrastructure)을 건설하여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점차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로 전환하는데 참고할 유명한 “온주 모델(溫州 model)”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온주는 옛적부터 바다를 통한 밀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세계 유명상품의 “가짜” 상품으로도 유명하였다. 한 때는 일본에서 널리 퍼져 유명하던 “100엔 짜리 라이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눈에 띄었었는데, 온주의 값싼 라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저가공세(低價攻勢)를 계속하자, 지금은 그 옛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일본의 모터바이크(motorbike : 모터사이클)도 온주의 염가제품 때문에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어패럴 산업에서도 온주에서 “빠오시냐오(報喜鳥 : 행복을 갖다 주는 새)” 브랜드의 고급 신사복을 시가 3,000 5,000 위안(元)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호평을 받으며, 상하이(上海)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다.

절강성은 오래전부터 영파나 온주를 중심으로 한 상인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고장으로 지금으로부터 150여년전인 1845년에 상하이들의 중국 개항(開港) 도시에, 구미 여러 나라의 행정권(行政權)·경제권이 행사되던 특수 외국인 거주지이던 조계(租界)가 있던 시절부터 상하이에서 상인으로서나 기업인으로서 구미의 상인이나 기업가들을 상대로 활약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온주를 비롯한 절강성 출신의 인물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절강재벌(浙江財閥)의 원조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 후에는 자본가로서 홍콩이나 대만으로 건너간 기업가들이 많았다고 한다.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 작성 중

WTO에서 가입한 중국은 무역자유화로 재력(財力)이나 기술력이 풍부한 외국자본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한이 없어지면서 수입이 급속히 늘어나 이들 수입상품과의 경쟁 또한 어려워져,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력한 국유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경영하고, 중소기업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199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국 중소기업 발전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착수하고, 일본의 게이오의숙대학(慶義塾大學)과 중국의 청화대학(清華大學)이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주요 연구테마는 ①중국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 ②융자제도의 연구 ③기술 혁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 ④사회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⑤ 중소기업의 국제화에의 대응에 대한 연구 등으로 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이 프로젝트로 일본의 융자제도나 신용평가, 신용보증 등을 배우기를 바라고 있다. 이 연구팀은 중국의 지역별 생산, 소비, 투자 등을 망라한 총 경제활동의 지표가 되고 있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 총 경제활동 지표)가 가장 좋은 5개 지역(Best 5)중 하나로써 국유화가 안되어 있는 “비국유화율(非國有化率)”이 94%로 아주 높으며, 시장경제가 극히 잘 되어 있는 절강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내에 있는 온주, 영파, 소흥(紹興), 항주(杭州)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일본 학자들이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융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2개의 지점을 통하여 지방은행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중앙 은행 산하에는 공상(工商)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의 4개 상업은행이 있는데, 융자 대상은 대부분이 대기업들뿐이다. 1997년 이전에는 각 지방에 “신용사(信用社)”가 있어, 이들이 중소기업의 융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 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량채권을 안게 되어, 1998년에 신용

사를 지방 상업은행으로 개편하게 되었는데, 현재도 1조 7천억 위안(元)의 불량채권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다.

공상은행에서는 재무제표(財務諸表)를 받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를 AAA, AA, A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AAA는 최우수기업으로서 훌륭한 동간판(銅看板)을 받아 걸게 되며, 금리도 우대이율을 적용 받는다. 불량용자가 발생하면 용자 담당자, 심사자, 결재한 지점장 등 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중소기업의 용자는 극히 어렵게 된다.

중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는 기본적으로 설비투자 자금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용자기간도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으로 짧으며,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이나 단기유동자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주시 등에서는 몰래 비공식 암금융(闇金融) 즉 “고리대금”이 발달하고 있으며, 돈을 빌려쓰는데 담보는 필요없고, 금리는 13~18%가 시세로 되어 있으며, 서로 잘 아는 사이이거나 잘 아는 사람의 소개가 있는 경우에만 전화 한 통이면 돈을 쓸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암금융을 없애고 안정적인 용자제도를 확립하고자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촉진법”으로 성(省)이나 현(縣) 수준의 행정기관에 의한 정책적 금융지원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에게 유동자금, 운전자금 등을 손쉽게 용자해 주는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공고(金融公庫)”와 같은 장기저리 용자기관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WTO 가맹 후 세계적으로 교역을 개방하는 절차의 하나로 모든 외국기업에게도 중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하게 됨으로 중국의 중소기업에게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WTO 가맹 후 2년 내에 외국은행은 중국기업에게 중국 위안화로 용자해 줄 수가 있어 풍부한 자금력을 유리한

이자로 우량 중소기업에게 본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